

# 보도자료

2006년 10월 16일(월)

이 자료는 10월 17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0월 16일 12:00 이후부터 취급가능

제 목 : 최근 유가 동향과 경기지역 경제

(붙 임)

문의처 :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조사역 권성택

Tel: 031)250-0085 Fax: 031)250-0113 E-mail: gyeonggi@bok.or.kr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bok.or.kr>)-지역본부-경기본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Gyeonggi Branch, The Bank of Korea

“소중한 돈 깨끗하게 문화유산 아름답게□□

<붙임>

# 최근 유가 동향과 경기지역 경제

2006. 10.

한국은행 경기본부

# 차 례

<요 약>

I. 최근 유가 동향 및 전망 .....	1
II. 유가 하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6
1. 개 황 .....	7
2.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	9
3. 지역 가계에 미치는 영향 .....	14
III. 종합평가 및 시사점 .....	16

< 요약 >

## 1. 최근 유가 동향 및 전망

■ 최근 국제유가는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주요 유가 예측 전문기관들은 2007년중 국제유가가 배럴당 55~65달러 (연평균, 두바이油 기준) 수준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

- 국제유가는 8월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10.12일 현재 55.36달러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
  - 국내유가도 14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 기록
- 향후 국제유가는 추가적인 급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란 핵문제 전개 양상, OPEC 산유 정책, 동절기 석유수요 규모 등에 따라 그 향방이 좌우될 전망
  - 주요 유가예측 전문기관(9월)들은 금년 4/4분기에 이어 2007년에도 국제유가가 현 수준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존 전망치를 하향 조정

## 2. 유가 하락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경기지역은 석유의존도가 낮은 산업구조로 인해 유가 등락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 완화, 경상수지 개선 및 국내외 수요 증가 등을 통해 산업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분석

⇒ 경기지역은 주력 제조업종이 석유의존도가 낮은 IT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규모 대비 석유소비량이 적은 실정

- 2005년중 석유소비량 및 원유·석유제품 수입액은 전국대비 각각 12.6%, 1.4%로 GRDP(19.9%) 등 경제규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제조업의 석유소비점유율은 10.9%로 전국평균(45.7%)의 1/4 수준

⇒ 경기지역은 산업구조상 석유의존도가 낮아 유가가 지역산업 전반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타지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0.3%), 자동차(0.9%), 컴퓨터·사무용기기(0.1%) 등 주력 제조업종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원유·석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산업 가운데 최저 수준
- 자동차는 유가에 대한 내수탄력성(유가 10% 하락 → 내수 5.1~8.3% 증가)이 높아 유가 하락의 수혜 산업

산업별 석유의존도 및 산업구조

	석유의존도	산업구조			석유의존도	산업구조	
		경기	전국			경기	전국
전산업	6.20[3.61]	100.0	100.0	건설업	1.29	2.0	2.4
제조업	8.08[2.08]	39.2	28.4	전기·가스·수도	27.53	10.1	9.4
음식료품	1.23	2.6	1.7	서비스	3.73	46.4	56.0
섬유류	1.57	1.5	1.4	도소매	3.15	4.9	7.0
목재·종이	1.68	1.6	1.1	음식·숙박	3.44	2.4	2.7
석유제품	82.44	0.0	1.7	운수	19.18	2.7	4.5
화합물·화학제품	14.30	2.8	4.5	통신	0.58	2.7	2.4
고무·플라스틱	1.91	2.1	1.2	금융·보험	0.58	5.9	8.4
1차금속	1.98	1.7	2.8	부동산·사업부스	1.22	11.5	12.7
조립·기계	1.26	5.6	3.6	행정·국방·복지	1.69	7.3	8.8
컴퓨터·사무용기기	0.14	1.3	0.4	교육서비스	1.54	5.1	5.8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	0.34	10.4	4.9	기타서비스	2.63	3.9	3.7
수송장비	0.90	4.9	4.2	농림수산업	5.62	2.1	3.6
기타 제조업	1.23	4.6	2.7	광업	9.25	0.2	0.2

주 : 1) [ ]내는 석유제품 제외시

⇒ 다만 유가 하락은 국내외 물가 상승압력 완화, 경상수지 개선 및 국내외 수요 증가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기를 진작시키는 간접적 파급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기대

- 국제유가 1% 하락시 1~3차년도 연평균 GDP +0.02%, 소비자물가 -0.04% 및 경상수지 1.9억달러 개선 효과

### 3. 유가 하락이 지역 가계에 미치는 영향

■ 최근의 유가 안정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증대되고 그 간 지속된 초고유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물가불안 우려가 해소됨으로써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할 전망

- 2005~2006년중 유가상승에 따른 경기지역 가계의 추가 지출 규모 추정치가 2.2조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유가 하락으로 인한 가계의 구매력 증대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

유가변동에 따른 경기지역 가계지출 증감액 추정

(십억원)

		'04년(기준)	'05년	'06년	'07년
전 제	국제유가(Dubai油,\$/bbl)	33.7	49.6	62.3	59.2
	국제유가변동률(전년대비,%)	-	+47.0	+25.7	-5.1
	국내유가변동률(전년대비,%)	-	+4.9	+5.1	-1.0
	물가상승압력(연평균,%)	-	+1.74	+0.95	-0.19
		지출	유가변동에 따른 지출 증감액		
<b>가계지출</b>		<b>82,589</b>	<b>+1,436</b>	<b>+798</b>	<b>-159</b>
교통비		10,274	+504	+554	-115
난방·취사 연료비		1,566	+419	-10	-20
기타 가계지출		70,749	+513	+254	-24

###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 경기지역은 석유의존도가 낮은 산업구조로 인해 유가 하락이 지역산업 전반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나 산업 전반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증대시키는 등 지역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

- 자동차의 경우 유가 하락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수혜 산업

■ 한편 최근의 국제유가 움직임이 구조적인 하락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에너지 절약정책의 지속적 추진,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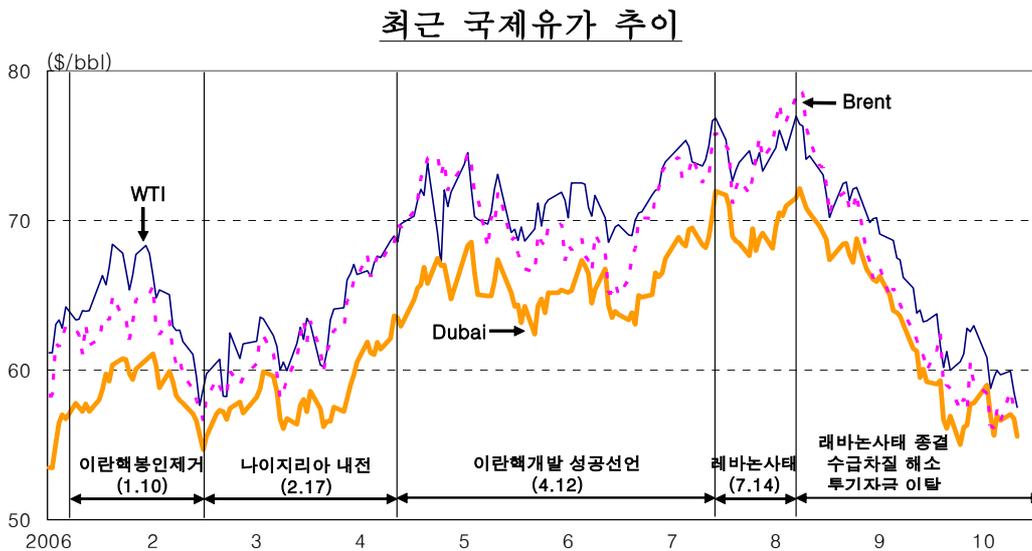
# I. 최근 유가 동향 및 전망

## 1. 국내외 유가 동향

□ 국제유가(Dubai油 기준)\*는 금년 8.8일 배럴당 72.1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10.12일 55.36달러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

\* 2006년 1~8월중 우리나라 전체 원유수입의 Dubai油 비중 : 82.5%

○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8.8일 대비 23.3% 하락한 수준



	(\$/bbl, %)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3월말	6월말	8.8	8월말	9월말	10.12	전년말비	8.8일비
Dubai	28.52	34.15	53.49	60.53	67.46	72.16	65.92	57.80	55.36	+3.5	-23.3
WTI	32.50	43.42	61.17	66.39	73.91	76.98	70.19	62.96	58.18	-4.9	-24.4
Brent	30.18	40.08	58.33	66.21	73.58	78.73	66.76	59.18	57.63	-1.2	-26.8

자료 : 한국석유공사

□ 한편 국내유가(휘발유 소비자가격 기준)는 국제유가의 급등락세를 대체로 1/5~1/8 정도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 시현

- 10월 2주 현재 1,452.7원으로 최고치(8월 3주 1,548.0원) 대비 6.2% 하락(국제유가 하락폭 23.3%의 1/4)하여 14개월여만에 최저 수준 기록

### 국내유가 및 국제유가 추이 비교<sup>1)2)</sup>

(원/리터,\$/bbl,%)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3월말	6월말	최고기 <sup>4)</sup>	8월말	9월말	10월2주	최고기대비
국내유가 (A)	1302.4	1336.1	1462.3	1478.6	1538.1	1548.0	1541.4	1477.3	1452.7	-
	[+1.3]	[+2.6]	[+9.4]	[+1.1]	[+5.2]	[+5.9]	[+5.4]	[+1.0]	[-0.7]	[-6.2]
국제유가 (B)	28.52	34.15	53.49	60.53	67.46	72.16	65.92	57.04	55.36	-
	[+7.5]	[+19.7]	[+56.6]	[+13.2]	[+26.1]	[+34.9]	[+23.2]	[+6.6]	[+3.5]	[-23.3]
B/A(배) <sup>3)</sup>	5.8	7.6	6.0	12.0	5.0	5.9	4.3	6.6	6.6	3.8

주 : 1) 무연휘발유(주간단위) 및 Dubai油 기준 2) [ ]내는 전년말대비(%)  
 3) 국제유가 등락율/국내유가 등락율  
 4) 국내유가는 8월 3주, 국제유가는 8.8일 기준  
 자료 : 한국석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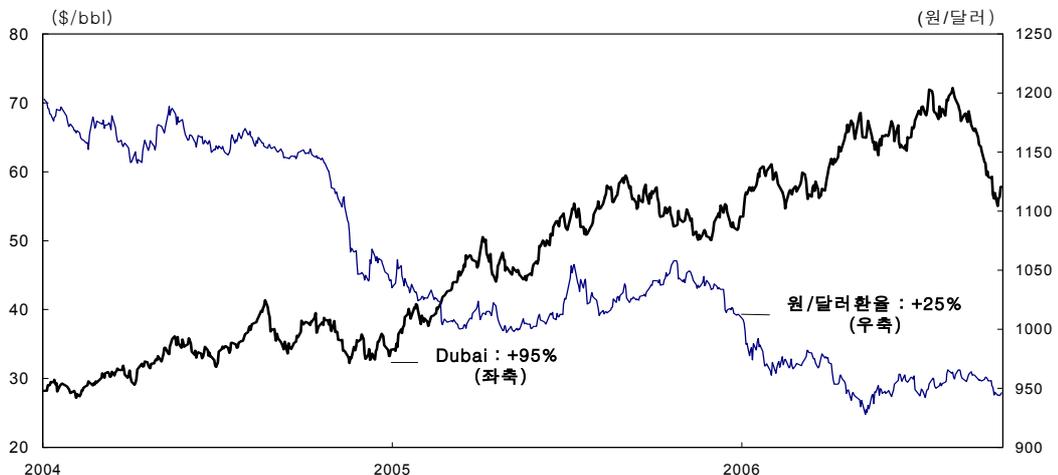
— 이는 국내유가의 높은 세금 비중 및 원화절상 효과에 주로 기인

-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의 세금 비중은 각각 57%, 47%\*

\* 10월 2주 현재 휘발유의 세전가격(479.7원)은 소비자가격(1,452.7원)의 33% 수준

- 2004년 이후 국제유가가 95% 상승하였으나 동 기간중 원/달러환율도 25% 절상되어 국제유가 상승폭을 일정 부분 상쇄

### 국제유가 및 원/달러환율 추이



## 2. 최근 국제유가 하락 요인

### (지정학적 불안요인 완화)

- UN안보리의 대이란 결의안 채택 및 이란의 거부\*(7.31일)로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8.8일)하기도 하였으나 이란 사태에 대한 외교적 해결 노력이 강화되면서 불안감이 완화

\* UN안보리가 2006.8월말 시한을 두고 핵개발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이란이 핵개발 강행의사를 밝힘에 따라 마감시한 이후의 제재 가능성이 부각

- 지난 7.13일 일어난 이스라엘-헤즈볼라간 무력충돌도 UN안보리의 휴전결의안 채택(8.11일)으로 사실상 종료

### (원유 공급차질 일부 해결)

- 이란 사태와 함께 국제유가 급등을 초래하였던 미국 알래스카 및 나이지리아 유전의 공급차질 문제가 일부 해결

- 누유사고에 따른 송유관 교체로 당초 생산을 전면중단(40만b/d)할 계획이었던 미국 알래스카 Prudhoe Bay\* 유전이 부분중단(20만b/d)으로 변경(8.11일)되고 10월말까지 완전 복구 예정

\* 미국 전체 생산량의 8% 및 알래스카 생산량의 50% 정도를 차지

- 나이지리아 석유중심지인 니제르삼각주(Niger Delta)에 대한 반군 테러로 대규모 공급차질(최대 83만b/d)이 지속되다가 생산재개, 신규 심해유전 생산개시 등에 힘입어 공급차질 규모가 축소(30~40만b/d)

- 이 밖에 미국 걸프만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열대성 폭풍 Ernesto의 진로 변경, 미국 휘발유 성수기 종료 등도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

## (선물시장의 투기자금 이탈)

□ 이란 핵사태, 이스라엘-레바논 분쟁 등을 틈타 원유 선물시장에 집중 유입되었던 투기자금이 차익실현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이탈한 것도 유가 안정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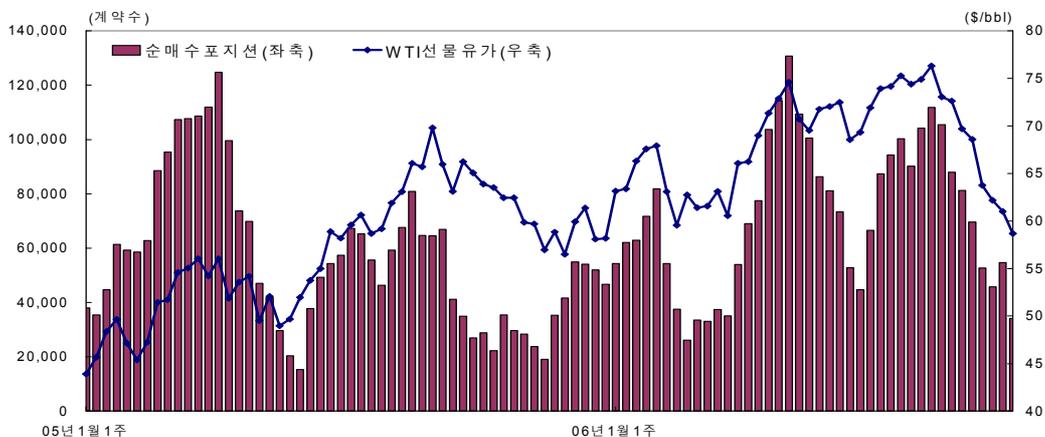
○ 10월 1주(10.3일) NYMEX 선물시장의 순매수포지션은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8월 2주(8.8일) 대비 69.4% 감소(11.2만 → 3.4만 계약)

－ 동 기간중 WTI 선물가격은 23.1% 하락(76.31 → 58.68달러)

**NYMEX 순매수포지션 및 선물유가<sup>1)</sup>**

구분 일자	순매수포지션		WTI선물	
	계약(수)	전기대비(%)	가격(\$/bbl)	전기대비(%)
8월1주 <sup>2)</sup>	104,116	+11.9	74.91	+0.6
<b>2주</b>	<b>111,778</b>	<b>+7.4</b>	<b>76.31</b>	<b>+1.9</b>
3주	105,454	-5.7	73.05	-4.3
4주	87,936	-16.6	72.63	-0.6
5주	81,335	-7.5	69.71	-4.0
9월1주	69,597	-14.4	68.60	-1.6
2주	52,659	-24.3	63.76	-7.1
3주	45,808	-13.0	62.17	-2.5
4주	54,721	+19.5	61.01	-1.9
<b>10월1주<sup>3)</sup></b>	<b>34,152</b>	<b>-37.6</b>	<b>58.68</b>	<b>-3.8</b>
		<b>&lt;-69.4&gt;</b>		<b>&lt;-23.1&gt;</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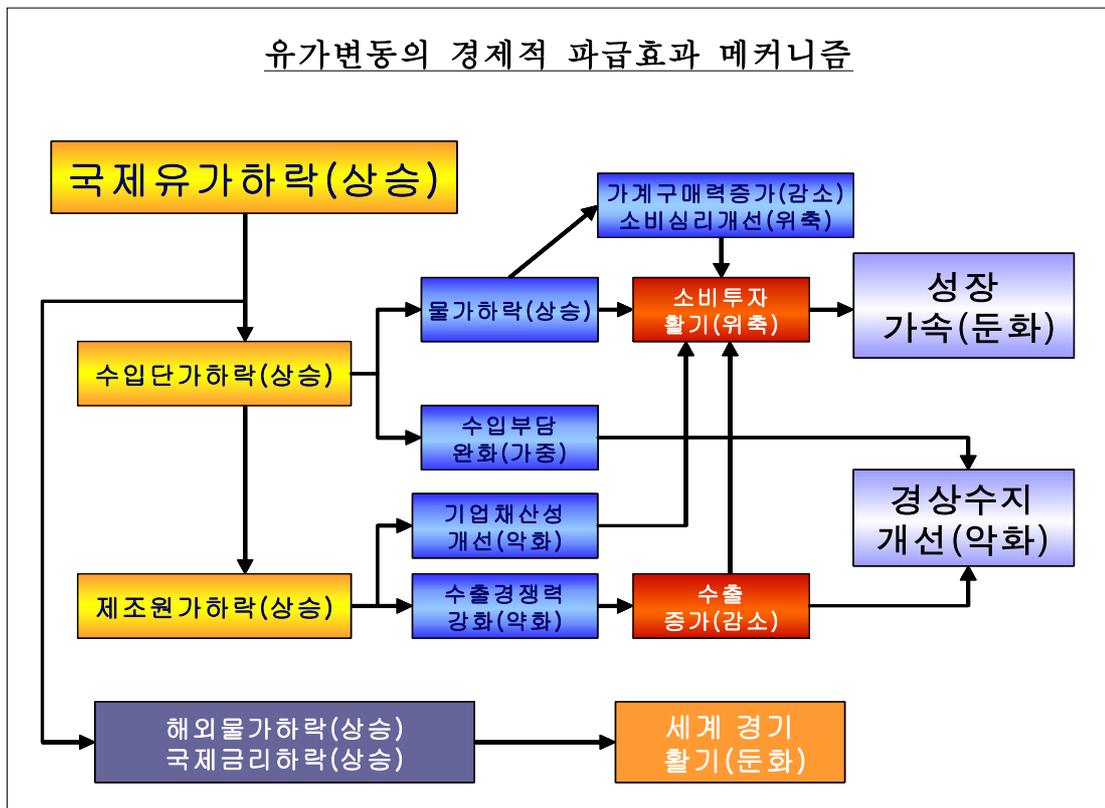
주 : 1) 1계약=1,000배럴    2) 7월 대비    3) < >내는 8월2주 대비  
자료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 II. 유가 하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유가 하락은 유류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전반에 걸쳐 채산성을 개선시키고 가계의 구매력 및 소비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한편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물가 상승압력 완화, 소비·투자 활성화 등에 따른 경제성장, 수출증가·원유수입 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개선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



자료 :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

⇒ 본고에서는 경기지역의 산업구조 특성 등을 감안하여 최근의 유가 안정이 지역 산업 및 가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초점을 두고 분석

# 1. 개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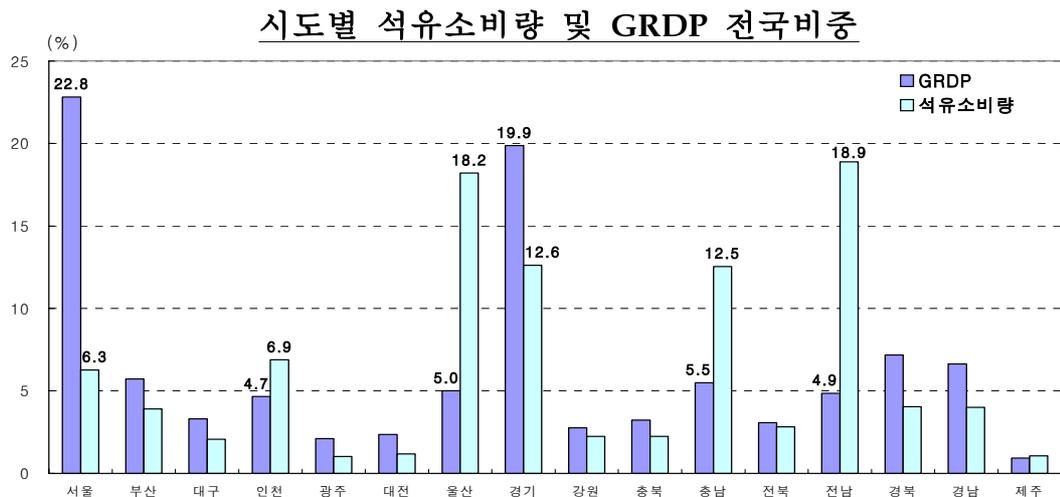
□ 경기지역은 석유의존도\*가 낮은 산업구조로 인해 경제규모 대비 석유소비량(LPG 포함)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

\* 2000년 산업연관표 기준 제조원가 대비 원유 및 석유제품 투입비중(전국)  
: 산업별 석유의존도 등 자세한 내용은 '2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9page 표' 참조

○ 2005년중 경기지역의 석유소비량은 전국대비 12.6%(96백만배럴)로 GRDP(19.9%), 사업체수(18.1%) 등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

－ 원유·석유제품 수입액은 7.1억달러로 전국대비 1.4%에 불과

\* 전국대비(2004~2006년) : GRDP 19.9%, 인구 22.0%, 가구수 21.0%, 사업체수 18.1%, 종사자수 19.8%, 자동차등록대수 22.9%



자료 : 통계청, 한국석유공사

－ 이는 경기지역의 주력 제조업종이 석유의존도가 낮은 IT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다 전기, LNG 등 대체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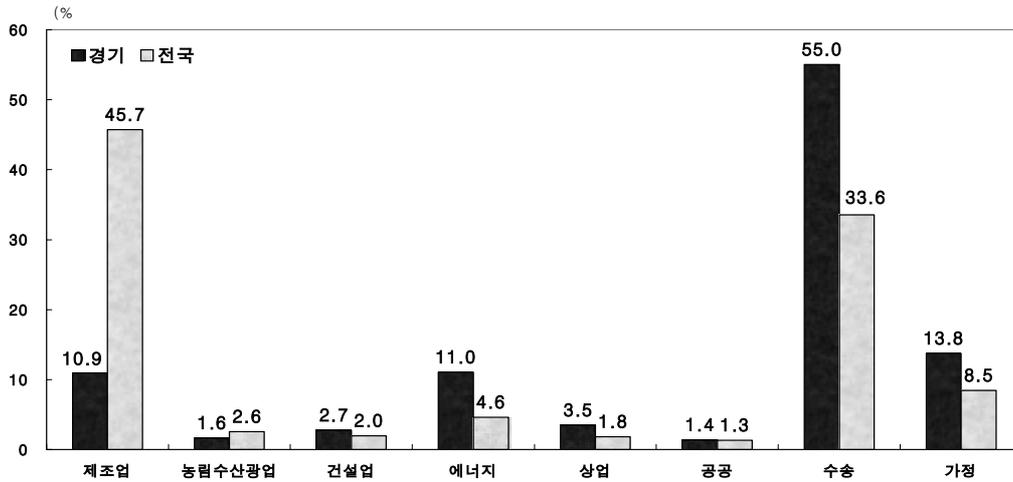
**에너지원별 구성비**

	(%)					
	석유	석탄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기타
경기	50.0	1.9	17.3	25.1	3.7	2.0
전국	57.5	13.4	9.8	16.2	0.8	2.4

- 부문별 석유소비점유율을 보면 제조업 비중이 10.9%로 전국 평균(45.7%)의 1/4 수준에 불과한 반면,

수송(55.0%), 가정(13.8%), 에너지(11.0%) 비중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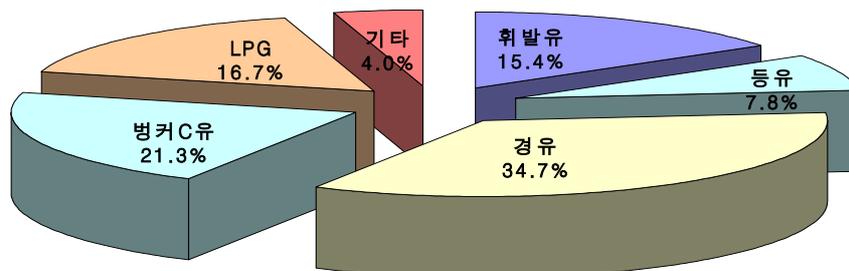
부문별 석유소비 점유율



- 유종별 소비구성비를 보면 경유가 34.7%(33백만배럴)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벙커C유 21.3%(21백만배럴), LPG 16.7%(16백만배럴), 휘발유 15.4%(15백만배럴), 등유 7.8%(8백만배럴) 등의 순\*

\* 유류비 부담이 적은 경유비중(2000년 26.7%→2005년 34.7%)은 늘고 있는 반면, 가정난방·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등유비중(14.4%→7.8%)은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한 LNG 보급 확대에 감소 추세

경기지역 유종별 소비 현황



자료 : 한국석유공사

## 2.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경기지역은 주력 제조업종의 석유의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석유 화학 등 유류의존형 제조업 비중이 작아 유가 하락이 지역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타지역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

산업별 석유의존도 및 산업구조

	석유의존도 <sup>1)</sup>	산업구조 <sup>2)</sup>			석유의존도	산업구조	
		경기	전국			경기	전국
전산업 <sup>3)</sup>	6.20[3.61]	100.0	100.0	건설업	1.29	2.0	2.4
제조업 <sup>3)</sup>	8.08[2.08]	39.2	28.4	전기가스수도	27.53	10.1	9.4
음식료품	1.23	2.6	1.7	서비스	3.73	46.4	56.0
섬유류	1.57	1.5	1.4	도소매	3.15	4.9	7.0
목재종이출판인쇄	1.68	1.6	1.1	음식숙박	3.44	2.4	2.7
석유제품	82.44	1.7	0.0	운수	19.18	2.7	4.5
화합물화학제품	14.30	2.8	4.5	통신	0.58	2.7	2.4
고무플라스틱	1.91	2.1	1.2	금융보험	0.58	5.9	8.4
1차금속	1.98	1.7	2.8	부동산사업서비스	1.22	11.5	12.7
조립기계	1.26	5.6	3.6	행정국방복지	1.69	7.3	8.8
컴퓨터사무용기기	0.14	1.3	0.4	교육서비스	1.54	5.1	5.8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	0.34	10.4	4.9	기타서비스	2.63	3.9	3.7
수송장비	0.90	4.9	4.2	농림수산업	5.62	2.1	3.6
기타 제조업	1.23	4.6	2.7	광업	9.25	0.2	0.2

주 : 1) 2000년 전국 산업연관표상 제조원가 대비 원유 및 석유제품 투입비중

2) 대분류 및 서비스업 중분류는 GRDP, 제조업 중분류는 산업총조사 생산액 기준(2004)

3) [ ]내는 석유제품 제외시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한국석유공사,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가. 제조업

(유가 고민감도 업종 : 자동차, 화합물 · 화학제품)

- 경기지역의 주력 수출업종\*인 자동차는 유가가 제조원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나 자동차운행비 및 소비자구매력 변화에 따른 수요탄력성이 높아 유가 하락의 수혜 산업이 될 것으로 분석

\* 2005년 기준 경기지역 상위 75% 수출품목 : 반도체 등 전자부품(133억달러, 23.8%), 자동차·부품(106억달러, 19.0%), 무선통신기기(93억달러, 16.6%), 가전(34억달러, 6.1%), 컴퓨터(29억달러, 5.1%), 플라스틱제품(12억달러, 2.2%) 등

○ 자동차는 석유의존도가 0.9%로 제조업 평균(8.1%, 석유제품 제외시 2.1%)을 크게 하회

— 즉, 유가 10% 하락(상승)시 제품가격에는 0.09%의 하락(상승)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휘발유가격 10% 인하(인상)시 자동차 내수는 5.1~8.3% 증가(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적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 다만 국내 자동차 산업은 원화강세 및 내수부진에 대응한 해외 생산비중 확대 전략 등으로 수출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유가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

— 특히 경기지역 자동차 산업의 수출비율(수출차량대수/내수차량대수)은 2002년 0.77에서 2006년 1~7월 현재 2.88로 증가하여 전국평균(0.93 → 2.36)보다 빠르게 상승\*

\* 2003~2005년중 자동차 수출 증가율 : 경기 +27.5% > 전국 +20.0%  
내수 감소율 : 경기 -15.5% > 전국 -10.4%

자동차 산업 수출비율<sup>1)</sup>

	'90	'95	'00	'02	'04	'05	'06.1~7
한국	0.36	0.63	1.17	0.93	2.17	2.26	2.36
경기 <sup>2)</sup>	-	-	-	0.77	2.27	2.64	2.88
일본	0.75	0.55	0.75	0.75	0.82	-	-

주 : 1) 수출차량대수/내수차량대수    2) 기아·쌍용차 기준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 화합물·화학제품은 석유의존도가 14.3%로 제조업평균 수준을 큰 폭 상회하여 경기지역의 주력 제조업종 가운데 유가 하락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
  -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기초원료인 나프타가격\*의 하락으로 제품가격, 채산성 등 업황에 큰 영향
    - \* 지난 7.14일 배럴당 74.15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급락세를 보여 10.11일 현재 25.1% 하락한 55.57달러
  - 다만 경기지역 화합물·화학제품의 경우 석유의존도(82.4%)가 높은 석유화학 비중이 매우 낮아 유가하락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
    - 전국 석유소비에서 화학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5%에 이르는 반면 경기지역은 동 비중이 1.9%에 불과한 실정

(유가 저민감도 업종 : IT, 기계·조립 등)

-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0.3%), 컴퓨터·사무용기기(0.1%), 기계·조립(1.3%), 고무·플라스틱(1.9%) 등 경기지역 주력 제조업들의 석유의존도는 1% 내외로 제조업(8.1%, 석유제품제외시 2.1%) 및 산업(6.2%, 3.6%) 평균을 크게 하회
  - 컴퓨터·사무용기기(0.1%), 전자부품(0.4%), 영상·음향·통신기기(0.3%)의 석유의존도는 전산업 가운데 최저 수준
  - 다만 비스타(Vista)\* 출시 등을 앞두고 향후 세계 IT경기 회복이 예상되고 있어 유가하락이 구매력 증가 및 소비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새로운 윈도우 운영체제로서 2007년 상반기 출시 예정
- 고무·플라스틱, 기계·장비 및 조립·금속 산업 또한 석유의존도가 1.2~1.9%로 낮아 유가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

## 나. 비제조업

- 전기·가스·수도업은 석유의존도가 27.5%에 달해 유가 하락에 따른 제조원가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경기지역 전기·가스·수도업의 석유소비 전국비중은 30.4%로 운수(20.7%), 가정(20.5%) 부문의 동 비중 및 GRDP 전국비중(19.9%)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높은 수준

부문별 석유소비 현황<sup>1)</sup>

	(백만bbl, %)					
	소계	제조업	건설업	운수 <sup>2)</sup>	가정	전기·가스·수도
경기	96 [12.6]	10 [3.0]	3 [17.5]	53 [20.7]	13 [20.5]	11 [30.4]
전국	761 [100.0]	348 [100.0]	15 [100.0]	255 [100.0]	64 [100.0]	35 [100.0]

주 : 1) [ ]내는 전국대비 비중(%)      2) 도로, 철도, 해운, 항공

-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은 석유의존도가 1.3%로 낮아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작으나 유가 하락에 따른 경기 활성화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건설장비용 연료비 및 물류비 변화, 중동 산유국들로부터의 해외건설수주액 증감 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분석
-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평균 석유의존도가 3.7%로 제조업보다 낮고 경기지역의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운수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 경기지역은 운수업(경기2.7%, 전국4.5%), 도소매업(4.9%, 7.0%), 음식숙박업(2.4%, 2.7%) 등 석유의존도가 높은\* 서비스 업종들의 산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운수업의 석유 의존도가 19.2%로 유가 변동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류비·냉난방비 등의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3.2%), 음식 숙박업(3.4%)도 석유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

○ 다만 국내 산업의 생산비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유가 하락에 따른 운수업의 원가 절감은 산업 전체의 물류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전망

### 3. 지역 가계에 미치는 영향

□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자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그간 초고유가로 크게 늘어났던 가계의 유류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국내 정유업체들은 원가변동분을 대부분 제품가격에 반영

	원유도입단가	휘발유	경유	등유
(2005.1~2006.8월)	+70%	+44%	+54%	+51%

주 : 1) 원유도입단가는 환율 감안 기준  
2) 휘발유, 경유는 공장도가격(세전가격)

— 다만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중 고정비인 세금비중이 30~60%에 달해 소비자의 체감 인하폭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분석

#### 원유도입단가<sup>1)</sup> 및 석유제품가격<sup>2)</sup>

(달러/bbl, 원/리터, %)

	'04년	'05년	'06년					
			1~9월	1/4	2/4	7월	8월	9월
원유도입단가	36.15 (+21.2)	50.51 (+25.0)	63.93 (+18.9)	1,471	1,532	1,543	1,545	1,506
휘발유	1,365 (+5.4)	1,432 (+4.9)	1,511 (+5.5)	1,471	1,532	1,543	1,545	1,506
경유	908 (+17.6)	1,080 (+18.9)	945 (-12.5)	922	952	960	967	956
등유	755 (+18.2)	872 (+15.5)	1,230 (+41.1)	1,162	1,240	1,296	1,298	1,272

주 : 1) 상승·하락율은 환율 감안 기준

2) 기간평균 주유소 판매가격, ( ) 내는 전년대비 상승률(%)

자료 : 재정경제부, 한국석유공사

○ 2005년 및 2006년중 유가상승에 따른 경기지역 가계의 추가 지출 규모는 각각 1.4조, 0.8조원에 이르며,

유가가 현 수준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2007년\*에는 교통비를 중심으로 약 0.2조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

\* 전제 : 국제유가 2006년 대비 5.1% 하락, 국내유가 1.0% 하락

### 유가변동에 따른 경기지역 가계지출 증감 추정

(십억원)

		'04년(기준)	'05년	'06년	'07년
전 제	국제유가(Dubai油,\$/bbl) <sup>1)</sup>	33.7	49.6	62.3	59.2
	국제유가변동률(전년대비,%)	-	+47.0	+25.7	-5.1
	국내유가변동률(전년대비,%) <sup>2)</sup>	-	+4.9	+5.1	-1.0
	물가상승압력(연평균,%) <sup>3)</sup>	-	+1.74	+0.95	-0.19
		지출	유가변동에 따른 지출 증감분 <sup>3)</sup>		
<b>가계 지출<sup>4)</sup></b>		<b>82,589</b>	<b>+1,436</b>	<b>+798</b>	<b>-159</b>
교통비 <sup>5)</sup>		10,274	+504	+554	-115
난방·취사 연료비 <sup>6)</sup>		1,566	+419	-10 <sup>7)</sup>	-20
기타 가계지출		70,749	+513	+254	-24

주 : 1) '06년, '07년은 CERA, PIRA, CGES, EIA의 유가전망 평균치 사용  
 2) 휘발유가격 기준, '06년, '07년은 국제유가변동율의 1/5 수준으로 가정  
 3) 유가상승률 \* 0.37%(원유가격 10% 상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2000년 산업연관분석)  
 4) 전년도 지출 \* (1+물가상승압력/100)  
 5) 대중교통 및 개인교통으로 구분하지 않고 국내유가변동률 일괄 적용  
 6) 경기지역 가정부문 유류별 소비량 \* 연평균 유류별 소비자가격('06년, '07년은 추정치 적용)  
 7) 유류별 소비자가격의 큰 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감소로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산출  
 자료 : 통계청, 한국석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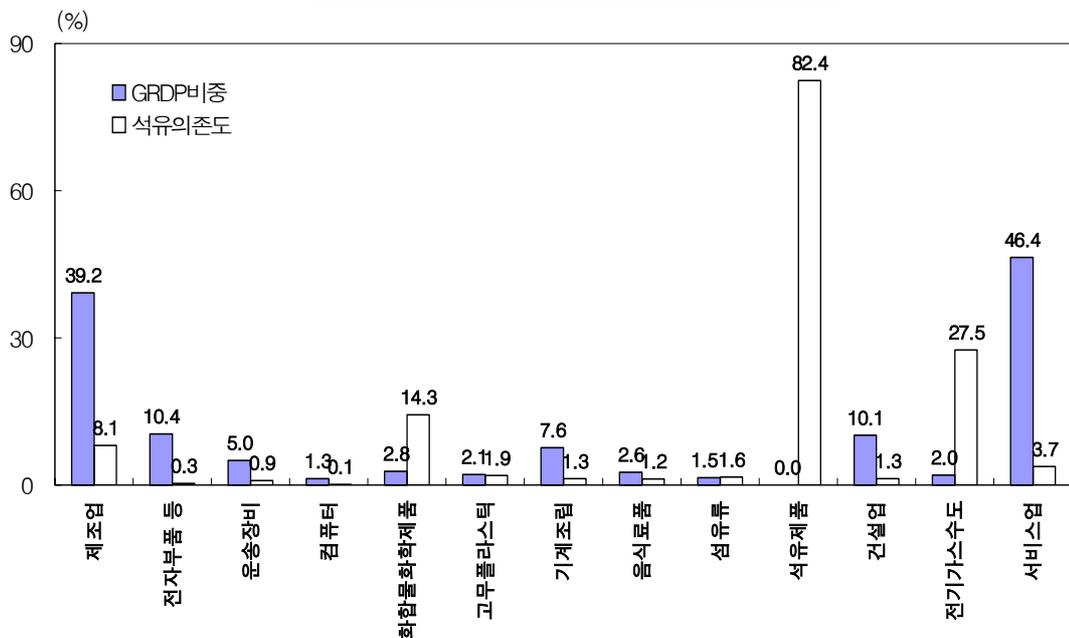
- 아울러 최근의 유가 안정은 유류비 지출부담 완화라는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장기간 지속된 초고유가에 따른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 및 물가불안 우려를 해소해 주고 여타 소비재의 가격인하를 유발하는 등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

## IV. 종합평가 및 시사점

### 1. 종합평가

- 경기지역은 산업구조상 석유의존도가 낮아 자동차 및 일부 유류의존형 화학업종을 제외하고는 유가가 지역산업 전반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타지역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 200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0.3%), 자동차(0.9%), 컴퓨터·사무용기기(0.1%), 기계조립(1.3%) 등 경기지역 주력 제조업종의 석유의존도가 1% 내외로 전산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 자동차의 경우 석유의존도는 낮으나 유가에 대한 내수탄력성(유가 10% 하락시 내수 5.1~8.3% 증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가하락의 수혜 산업이 될 전망

산업별 석유의존도 및 GRDP 비중



- 다만 유가하락은 국내외 물가 상승압력 완화, 경상수지 개선 및 국내외 수요 증가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기 활성화를 진작시키는 간접적 파급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기대
- 한국은행 거시계량경제모형(BOK04)으로 정책모의실험한 결과 국제유가 1% 하락시 1~3차년도 연평균 GDP +0.02%, 소비자물가상승률 -0.04%p 및 경상수지 1.9억달러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유가하락이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1~3차년도 평균>		
	GDP(%)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억달러)
국제유가 1% 하락	+0.02	-0.02	+1.9

주: 1) 한국은행 분기거시계량경제모형(BOK04모형) 시산 결과

- 또한 최근의 유가 안정은 유류비 지출 감소 및 여타 소비재의 가격인하 등을 통해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장기간 지속된 초고유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물가불안 우려를 해소해 줌으로써 민간소비 회복에도 크게 기여
- 2005~2006년중 유가상승에 따른 경기지역 가계의 추가지출 규모가 2.2조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유가 하락으로 인한 가계의 구매력 증대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

## 2. 시사점

###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정책 추진

- 최근의 국제유가 움직임은 기초적인 하락세라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및 수급차질 해소, 기술적 반락 등 단기적인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우선 에너지 절약 캠페인 강화, 고유가 대비 상시경영체제 구축 등 단기적인 처방을 강화할 필요
  - 가계는 ① 에너지 「3+6=9운동」·캐시백(Cash-Back) 제도\* 등 정부시책 적극 동참, ② 자연 냉난방 활용 극대화, ③ 자가용 연료비 절감(대중교통 이용, 운전습관개선, 차량 5부제,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 등), ④ 에너지 고효율제품 소비, ⑤ 대기전력\*\* 저감 등 에너지절약 생활화로 유가변동이 소비행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 \* 에너지관리공단이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운동 차원에서 전년에 비해 5~20%이상 전기를 절감한 가구에 대하여 현금(1~3만원)으로 돌려주는 제도로서 2005년 기준 경기지역 가구의 참여율은 8.7%로 저조한 실정
    - \*\* 국제에너지기구는 OECD 가구당 평균 전력소비량의 10%(6와트) 정도가 대기전력으로서 연간 손실액을 13억달러로 추정하고 2010년까지 모든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1와트 이하로 줄이도록 세계 각국에 권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기전력으로 인한 연간 손실액이 5,000억원으로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대기전력 1W 정책」을 추진중
  - 기업은 ① 자발적 협약(VA:Voluntary Agreement)\* 가입, ② 고효율 전동기 설치, ③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아웃소싱, ④ 폐열발전(Cogeneration)·배수활용시스템 등 관련시설 확충, ⑤ 공정·물류 시스템 개선 등 에너지 효율 제고 아이디어를 적극 실행

\* 연간 2천석유환산톤(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협약제도. 경기도는 2003년 기준 139개 사업장이 동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150toe(389억원)을 절감한 바 있으며, 2005년 현재 전국 1,288개, 경기 261개 사업장이 VA를 체결중

- 정부·지자체는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는 한편 ①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홍보 강화, ②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세제·자금 지원 확대, ③ 외국선진 절약정책 및 인센티브제 적극 도입\* 등을 통해 **가계, 기업 등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촉진**

\* 1992년부터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던 자발적 협약(VA)을 1998년 도입

- 더 나아가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는 단기적인 처방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 대체 에너지원 및 에너지 고효율제품 개발 촉진 등 **수급측면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

-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한 생물자원 가공에너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대체 에너지원 개발 및 실용화로 에너지 석유 의존도 저감 노력 경주

\* 일본 정부 및 기업은 차세대 연료로서 미생물을 활용해 이산화탄소에서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가스를 추출하고 식물에서 바이오 디젤유를 생산해 내는 등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연료 개발사업에 주력

-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계 소비자들의 에너지 절약형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에너지 고효율제품 개발에 주력**

- 정부·지자체는 대체 에너지원 및 에너지 고효율제품 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석유비축량 확충 및 해외 자원개발 시스템 혁신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공급 전략** 구축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 우리나라는 GDP대비 에너지소비량 비율이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세계평균 및 중국에도 못 미치는 등 에너지 고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주요국 에너지 소비량 및 효율성 비교  
(2003년 기준)

	한국	세계 <sup>3)</sup>	미국	일본	영국	유로	중국
소비량 <sup>1)</sup>	0.35	0.20	0.22	0.11	0.15	-	-
효율성 <sup>2)</sup>	4.2	4.5	4.5	6.5	7.1	6.4	4.5

주 : 1) GDP 1달러당 1차에너지 소비량(t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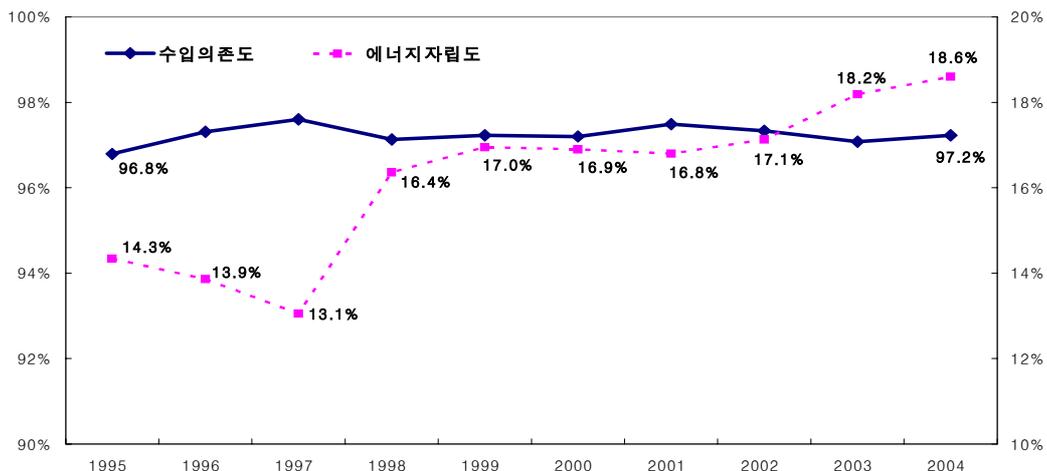
2) 1단위 에너지 소비에 따른 GDP(PPP기준) 산출효과를 계산한 에너지효율 종합지표

3) 소비량의 경우 OECD 평균

자료 : OECD, World Bank

- 아울러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서 에너지자립도가 완만하게 상승(1995년 14.3% → 2004.1/4분기 18.6%)하여 왔으나 1차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실정(96.8% → 97.2%)

1차에너지 수입의존도 · 에너지자립도 추이



- 일본, 영국 등 에너지 고효율 경제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지식 기반산업 중심의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